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 다 나 은 정 부
		배포일시 2020. 3. 9(월) 총 2매(본문 2매)		
담당 부서	대중교통과	담 당 자	· 대중교통과장 김동준, 사무관 양찬운 · ☎ (044) 201-3823, 3832	
	도로정책과	담 당 자	· 도로정책과장 이상현, 사무관 김정환 · ☎ (044) 201-3875, 3887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김현미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 “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” 추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찾아 방역활동 점검중시자 격려·코로나19 다각도 지원 나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'20.3.9(월)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,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-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,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(2.24일~3.1일)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~80%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.
 - * (고속버스) 2월5주 기준 '19년 99만 명 → '20년 26만 명
 - (시외버스) 2월5주 기준 '19년 320만 명 → '20년 95만 명
-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김 장관은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, ‘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,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’고 강조하였다.

- 특히,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, 고속·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,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다.
- 또한,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.
-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.
- 아울러, 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버스 방역활동을 점검하고,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.
- 이날, 김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, 터미널 대합실,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.
- 김 장관은 버스 및 터미널의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,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.